

# 문화매체에 나타난 妓生의 化粧문화와 美의식

홍란희\*

동서울대학 뷰티코디네이션과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져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妓生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의미가 다분한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보이는 것이 다일까? 妓生은 한국여성 美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몫을 차지하는데 이는 시, 그림, 영화, 연극 등 문화매체를 통해 그 맥과 흐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기생들의 化粧표현 및 최근 문화매체를 통해 드러난 妓生의 美의식(그림, 춤, 화장 도구 등)이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연극, 그림 및 문학세계 등 문화매체를 통해 나타난 妓生들의 화장 문화와 미의식에 초점을 두었다.

과거 妓生이 등장하는 문화매체의 예로는 단원 김홍도(풍속도, 미인화장 등), 신윤복(미인도) 등 그림에서의 그 모티브를 예로 들 수 있다. 단원은 도화서 화원으로서 궁중 채색화 '춘앵전 무도'를 그렸었다. '춘앵전 무도'에서는 분대화장에 빨간 연지를 찍은 고풍적인 춘앵전 여령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극적으로 대비되는 빨간색과 노란색을 사용하여 성숙한 여인이 갖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자아내고 초생달 눈썹에 빨간 앵두입술은 성적인 매력까지 더해주고 있다.

유명한 妓生으로는 시, 문장의 황진이, 매창, 소백주, 의기 계월향, 논개 흥련, 일화 소개 매창, 어우동 등이 있다. 한국의 향장역사와 美의식에 끼치는 妓生의 역할은 반추해볼 의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얀 분, 빨간 입술연지, 이성을 유혹하는 사향, 노루향 등 이들이 유입된 시기와 화장도구의 역사는 최근 몇 년 사이 문화매체를 통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과 창, 이재용 감독의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 및 2003년 문예 진흥원 창작활성화 지원작인 연극 [미룡]에 등장하는 초영 등이 비로서 그 존재를 대중들에게 폭넓게 드러냈었던 예다.

삶 자체가 한 편의 슬픈 詩였던 妓生들! 고려 妓生의 분대화장 형태는 조선시대 말까지 妓生들의 변함없는 화장법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에 의하면 장악원을 만들어 전국 기생들을 모아 분대화장법을 적극 장려하고 화장품 생산을 독려하기도 했다는 설이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愛香관습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회춘 혹은 조정 효과에 대한 기대로 향을 복용하면 회춘한다고 하여 많은 妓生들이 향을 복용하고 더불어 은은한 향내를 위해 몸에도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목욕문화와 함께 妓生들 사이에서는 미백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고 한다.

\* Corresponding author: madampetit@yahoo.co.kr

60~70 년대 화장 문화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 매스미디어는 영화, 연극, 잡지, TV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모체는 바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를 거쳐 그림 등의 매체에서 표현된 妓生들의 화장기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터부시되었던 직업계층인 妓生들의 화장표현과 최근 문화매체(연극, 영화, 그림 등)를 통해 드러난 妓生의 美의식(그림, 춤, 화장 도구 등)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과거 화장 문화를 선도했던 妓生들에 관련된 중요한 사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에게 맞는 전통 피부 관리 방법과 화장 문화를 계승, 창조한다면 세계적으로 화장 트렌드를 리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된다.

내년이면 해방 60 년-화장 산업의 재도약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특히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화장을 적극적인 표현의 단계로 승화시킨 妓生들의 삶을 현대 문화매체의 수단을 통해 새롭게 조명해 보았다.